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하나님의 나타나심**

[창세기 18:1]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엘로네)(테레빈스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역사상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매우 드문 일이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람의 99세 때에 그가 나타나셨음을 증거했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 있고 나타나셨다. 그는 마침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1:14).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셨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시므로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실 수 없고 사람이 육신적으로 경험하거나 또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지 성경 진리와 다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체적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셨다고 증거한다. 그것은 신화적 묘사가 아니고 사실적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는 마므레의 테레빈스 나무들 근처 장막문에서이었고 시간은 오정 즈음이었다. ‘오정 즈음’이라는 원어(케콜 하이움)는 ‘낮의 뜨거움’이라는 말로 ‘한낮 즈음’에 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셨다.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세 사람은 둘은 천사요 하나는 하나님이셨다.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3절은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거한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과 말씀하고 계셨고 두 사람만 소돔성으로 갔고 19:1은 두 천사가 소돔성에서 롯의 영접을 받은 것을 증거한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특별한 자들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 히브리서 13:1-2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

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하였다. 정통 유대교 서기관들인 마소라 학자들은 3절의 ‘내 주여’라는 말을 하나님께 대한 호칭인 아도나이로 읽었다.

[2-5절]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 . . .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였다.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주께서는 그의 제자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든 것을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5:35-36, 40).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교훈하였고(롬 12:13), 또 감독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말하였다(딤후 3:2).

아브라함은 어떻게 손님을 대접하였는가? 우선, 그는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다. 그것은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음을 보인다. 또 그는 몸을 땅에 굽혔다. 그것은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했음을 보인다. 또한 그는 그들에게 ‘내 주여’라고 말했고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다(3, 5절). 이것은 손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춤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마 20:26-27), 사도 바울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피차 복종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교훈하였다(롬 12:10; 엡 5:21; 빌 2:3).

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자신을 떠나 지나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떡을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그의 대접은 자원적이었다. 성경은 우리의 선행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한다(몬 14). 또 사도 바울은 우리의 헌금도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고(고후 9:7), 또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 무리를 돌보는 목회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벧전 5:2).

[6-8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 . . .

아브라함은 급히 그의 아내 사라에게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라고 부탁했다. 세 스아는

약 22리터로 세 사람 먹기에는 넉넉한 양이다. 또 그는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게 하였다. ‘기름지다’는 원어(라크)는 ‘부드럽다, 연하다’는 뜻이다. 그는 맛있는 고기로 대접한 것이다. 그는 뼈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모셔 앉고 그들은 먹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되, 즐거이, 겸손히, 간절히, 자원적으로, 정성스럽게 대접하였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좋은 아내는 좋은 주부이다. 시편 128:3은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라고 표현했다. 디도서 24-5는 젊은 여자들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교훈한다. 반면에, 잠언 7:11은 ‘그 딸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는 음녀’에 대해 묘사하였다. 좋은 아내는 집안일을 잘 하는 아내이다.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카에스 카이아)[오는 봄에(BDB), 내년 이맘 때(NASB, NIV)] . . . .

9절에는 ‘그들이 . . . 이르되’라고 말했으나, 10절은 ‘그가 가라사대’라고 말한다. 주어가 ‘그들’에서 ‘그’로 바뀌었다. 여기에 ‘그가 누구인지는 13-14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내년 이맘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다.

[11-15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sup>1)</sup>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으며 그와 그의 남편이 늙었으니 무슨 낙이 있겠는가라고 속으로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웃으며 부정적인 말 함을 지적하시며 그의 약속을 반복하셨다. ‘기한이 이를 때에’라는 말은 ‘오는 봄에’ 혹은

‘내년 이 맘 때에’라는 뜻이라고 본다(왕하 4:16-17에 도 같은 표현 나옴).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민 11:23; 욥 42:2; 눅 1:37).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엘 샷다이)’이시다(창 17:1). 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신 32:39; 롬 4:17).

[16-19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러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성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로, 그는 “내가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다(19절). ‘내가 그를 택하였다’는 원어(에다티우)는 ‘내가 그를 알았다’는 단어이다. ‘안다’는 말은 ‘호의적으로 안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심을 의미한다. 로마서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둘째로, 그는 아브라함의 지손들이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주관심은 사람이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지손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이다. 부모는 자신과 자녀들을 의의 말씀인 성경말씀으로 교육해야 한다.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지손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8-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3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의 약속은 창세기 22:18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이 복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자. 아브라함은 즐거이, 겸손히, 간절히, 자원적

1) 원문, “사라에게는 여인들에게 있는 것과 같은 것(오라크 קרא, 같이) 멈추었더라.” 이 표현은 여성의 월경이 멈추었음을 가리킨다고 본다(BDB).

로,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접하였다. 선행은 경건과 의의 열매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요점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며 손님 대접도 잘한다. 나 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장로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였다. 잠언 19:17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 꾸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주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의 제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교훈하셨다(마 25:31-46).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접하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자. 99세된 아브라함과 89세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처럼 회의주의자나 불신앙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자들이었다(마 22:29).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들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의 약속을 믿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곧 영생, 천국, 몸의 부활의 복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실제로 의롭게 살다가 마침내 그 복을 다 받는 것이다.

**주일오후설교**      **의심의 소제**

[민수기 5: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 . . .

본문은 이스라엘 진을 거룩케 하라는 명령이다. 나병은 악성 전염병이며(레 13장), 유출병은 사람의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병이다(레 15장).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不淨)하였다(민 19:11, 13). 이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어 보내져야 하였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낸 것은 위생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위생적으로는 병의 전염을 예방하는 뜻이 있고 또 상징적으로는 나병과 유출병 등이 사람의 불신앙, 교만, 이기심 등의 죄악성을 상징하였다고 본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5-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 . . .

본문은 짓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법이다. 이 법은 사

람의 죄가 그 값을 온전히 갚아야 사하여짐을 보인다. 또 그 짓값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된다.

[11-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 . . .

11절 이하는 의심의 소제에 관한 법이다. 가정은 사회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된 제도이다. 그런데 결혼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부의 순결이 매우 중요하다. 본문에 7번 나오는 '의심'이라는 원어는 '질투의 정신, 질투심'이라는 뜻이며, 3번 나오는 '의심하다'는 원어(키네)는 '질투하다'는 뜻이다(BDB). 영어성경들은 대체로 '질투'(jealousy)라는 말로 번역한다(KJV, NASB).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진리를 묵상케 된다. 첫째로, 본문의 법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전제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매우 포괄적인 법이다. 그것은 인간의 성이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금지됨을 보인다. 결혼 전 혹은 결혼 외의 성관계는 다 음행과 간음으로 정죄된다. 매춘(賣春)이나 동성애도 정죄된다.

사람의 죄들 중에 간음과 음행은 대표적인 죄들 중의 하나이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을 열거하면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 등의 순서로 말씀하셨다(마 15:19). 고린도전서 6:9-10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음란하는 자를 첫째로 꼽았다. 갈라디아서 5:19-21은 죄악된 육체의 일 17가지를 열거하면서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첫째로 꼽았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이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음란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 위에서 누리려면, 우리는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

둘째로, 본문의 법은 부부관계의 사랑과 행복이 상대의 순결성에 대한 신뢰에 있음을 보인다. 부부관계의 사랑과 행복은 상대의 순결성에 대한 신뢰에 있다. 간음은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마 5:32). 부부가 상대방의 사랑과 순결을 신뢰할 때는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의심할 때는 질투심이 생길 것이다.

질투의 소제는 두 가지 경우에 드리게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않았고 그 여

자의 더러워진 일에 대해 증인도 없고 그가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어도, 남편이 의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거나 더럽혀지지 않았어도 그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 의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그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물증은 없으나 그 다른 남자에 대한 아내의 표정을 통해서나 또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그것은 남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바깥에 숨겨둔 애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겠지만, 만일 주위의 사람인 경우는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 그들의 표정만 보아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의 감정이나 양심의 가책이 그 얼굴이나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본인이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마음에 질투의 불이 더욱 붙어 오르는 경우이다.

또는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거나 더럽힌 일이 없는데도 그 남편이 오해하여 잘못된 의심과 질투심을 가질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물론 남편의 지나친 생각과 비정상적 심리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여히튼 모든 질투심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부부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이런 위기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다름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관심이나 사랑의 식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부의 행복은 서로 사랑함에 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심과 질투심의 문제는 방지될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신 것이다. 매튜 풀은 이 규례가 아내의 간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살인, 이혼 등 남편의 격노한 행위들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16-22절]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 . . .**

셋째로, 본문의 법은 맹세의 중요성을 보인다. 이런 유의 일은 많은 경우 심증과 추측만 있고 물증이 없을 것이다. 만일 그 추측이 사실일 경우에 그 여자는 큰 죄를 지은 것이며 벌을 받아야 하고 이혼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그 추측이 사실이 아닌 경우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깨어져서는 안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맹세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

맹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통치와 징벌과 그의 복과 저주를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제사장은 그 여자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흙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물, 곧 질투의 소제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말해야 하였고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해야 하였다.

**[23-31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 . . .**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그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 것이며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은 그의 속에 들어가 쓸 것이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며 그 여인은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교회는 교리적, 윤리적으로 거룩한 교회이어야 한다. 우리는 불신앙, 이단사실, 교만, 이기심, 미움, 음란, 방탕 등의 죄악들을 다 버려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모든 교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하고 직분자들의 삶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죄값은 죽음 이요 지옥형벌이다. 우리의 죄값의 지불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함으로써 갚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만 갚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감사하며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죽도록 충성하자.

셋째로, 우리는 부부의 사랑과 행복을 잘 지키자. 우선, 우리는 간음하거나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뜻이다. 또 우리는 우리의 순결함을 배우자에게 보일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의심을 주거나 질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다른 이성에 대해 약간 사무직하게 하고 너무 친근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해야 한다.